

#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20, 위대한 8세기 고고학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Jeffrey Hudon 박사와 성서 고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0, 위대한 8세기 고고학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철기 시대의 대부분을 다루었지만 이제는 철기 시대의 매우 영향력 있고 중요한 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이번 영상강의에서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이고 고고학자들은 이를 철기시대 2B라고 부르며 대략 그 연대입니다., 첫 번째 날짜는 내 날짜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800~701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792년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이트 세메스에서 패하고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서 아마샤에서 웃시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전쟁.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대한 8세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故) 학자 Philip King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SBL 회장 연설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8세기 JBL에서 출판했습니다. 확실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8세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것은 매우 격동의 세기이며,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790년에서 740년 사이에 두 왕국은 매우 강력해졌고 그들의 힘을 뿜내며 정치적으로 둘 다 확장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국경과 경제적 힘. 이것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화와 사회의 통합 군주제에 이은 두 번째 황금시대입니다. 이러한 점은 일부 선지자, 특히 호세아, 아모스 및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구절에서 비판되고, 기록되고, 비평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이제 740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가 전진하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갈릴리를 정복하고 레반트로 진출한 후 북왕국을 거의 작은 엉덩이 국가로 만들자 아시리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으로 근육을 휘두르며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세기는 산헤립의 침략과 유다 왕국과 작은 지역 왕국 전체에 대한 황폐화로 끝나고, 이 앓수르 왕에게 가신으로 복종하여 엄청난 인명 손실과 엄청난 파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방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2000년은 매우 다사다난한 세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예언의 목소리와 일어났던 좋은 일과 나쁜 정치적 사건 때문에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세기입니다. 우선 금세기의 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싶다.

먼저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이 세 번째 중간기에 있으므로 23왕조와 25왕조 사이에 분열되어 있고 약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명한 이집트학자이자 제3중간기 전문가인 KA Kitchen은 같은 제목의 유명한 저작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26세기 또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의 사이테 왕조 까지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이집트의 약점으로 인해 이 지역 왕국이 짧고 짧은 기간 동안 강해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의 앓시리아 세력 역시 금세기에 아주 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 지역적 갈등과 약한 지도력으로 인해 앓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국한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니네베 자체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8세기 3분기에 왕좌에 오른 티글라트-빌레세르 3세의 통치 기간에만 앓시리아가 세계적 제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전문가는 DJ Wiseman과 Haim Tadmor입니다. Wiseman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Tiglath-Pileser III의 비문에 대한 Haim Tadmor의 중요한 작업과 Grayson의 작업을 포함하여 여기에 나열된 다른 작업 중 일부. 우리는 아시리아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의 기록은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단편적이었지만 다드모르와 그의 제자들은 그 기록들을 훌륭하게 모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8세기 아시리아 왕의 목록입니다. 그 중 일부는 티글랏-빌레셀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일 때문에 이것들은 확실히 감시 대상이 됩니다. 디글랏빌레셀은 다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샤르곤의 살만에셀 3세는 북쪽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남쪽 왕국을 황폐화시켰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의 전성기 사진입니다. 실제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7세기보다 늦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전성기에 있는 아시리아인들은 우라르투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우 강력했습니다.

8세기의 성경적 맥락에서 우리는 선지자와 역사적 작품, 왕과 연대기를 봅니다. 물론, 요나는 다시 요나서에 대한 8세기 초의 맥락으로, 그가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는 곳입니다. 또 유다 사람 아모스는 가서 전파하면서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하여 살려고 명하신 북방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아마도 다윗 가문의 일원이자 예루살렘 궁전의 궁정 선지자이자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그의 예언의 전반부는 다시 8세기 후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유다 세펠라에 있는 백성의 선지자 미가가 다시 이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를 구성하여 그 왕국, 즉 이 왕국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말하자면, 이 매우 흥미로운 세기 동안 말입니다. 요엘과 오바댜, 그 날짜는 불확실하며 아마도 그 이후일

것이므로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8세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아마샤가 유다 왕 예돔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용병들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용병들을 해고하여 유다의 일부 성읍을 약탈합니다. 아마샤와 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기록된 바에 따르면 불쾌한 일이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군대가 세펠라의 벳세메스, 조리크 골짜기에서 대결하여 유다는 패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요아스의 군대에 의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자체도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는데, 여기서의 용어는 일종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무너지거나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유다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아마샤는 인질로 잡혀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인 웃시야가 조연자들과 함께 유다의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투에서 발생한 베이트 세메스는 요새화되지 않았으며, 내 생각에 그것은 금세기 후반에 유다가 확장했으며 이곳은 더 이상 한 시대의 국경 도시가 아니었음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긴 시간. 게다가 웃시야가 인계를 받고 아마샤가 인질로 잡혀 왕권에서 제외될 때, 그 자리에 멸망층이 있고 동시에 왕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똑같은 사건. 따라서 파괴 계층을 새로운 왕의 세션과 연관시킬 수 있으며 히브리 왕의 신비한 숫자를 쓴 Edwin Thiele의 도움으로 Iron 2B의 시작에 대한 매우 정확한 날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792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수행한 현대 발굴과 함께 Beit Shemesh에 대한 개요이며, 이 두 사건, 즉 왕의 변화와 파괴 층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Iron 2A에서 Iron 2B로 변경하는 이상적인 책갈피 또는 라인을 만듭니다. 나는 고고학 및 성서 문헌에서 매우 잘 알려진 유적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유적지는 Kuntillet 입니다. 아주루드 .

우리는 앞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쿤틸레 아즈루드 는 시나이 동부의 매우 고립된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의 시나이 국경의 이집트 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도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장악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황량한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탐험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연구원 중 한 명은 Ze'ev Meshel이었고 그는 매우 고립된 요새를 발굴했습니다. 요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논쟁과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대 중반의 발굴 작업을 통해 이 고립된 성벽 구조가 기원전 9세기 말과 8세기 초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이 요새에서 나온 도자기 집합체는 북부 이스라엘의 형태와 유다의 형태,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해안과 아마도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가져온 다른 형태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발견물과 유적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발견된 것은 이 두 왕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현재 이 유적지의 초점 중 95%~99%는 내부 문실에서 발견된 저장 항아리나 피토이에 쓰여진 비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들은 중요성에 있어서는 부차적일 것입니다. 이제 이 비문은 비문 또는 기도였으며, 여기에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분의 아세라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전에 Khirbet el -Qom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으며, 이것은 가나안 신앙과 야훼 신앙 의 혼합인 하나님에 대한 혼합주의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또 여기의 대본과 철자법은 북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것은 이집트 국경에서 유다 수비대와 함께 봉사하는 북부 이스라엘 수비대이며, 웃시야의 통치인 웃시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내, 하나님과 그의 가나안인 아내에 관한 선정적인 문헌은 본질적으로 이집트 국경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공동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장소의 지정학적 의미에 비하면 부차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는 매우 번영했습니다. 다시 그는 예후 왕조의 일원이었으며, 트란스요르단의 일부를 포함하여 북쪽 왕국의 국경을 시리아와 아람, 다마스쿠스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열왕기는 그의 통치에 대해 아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bo Hamat와 같은 용어가 있는데, 이는 Hamat의 입구 또는 실제 사이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의 오랜 통치 하에서 분명히 번영을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8세기 초의 므깃도를 묘사한 므깃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로보암의 종인 쉘마의 인장, 특히 여로보암 2세와 사마리아의 상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통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통치였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웃시야에 대한 특별 파워포인트 강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간 동안에도 매우 성공했습니다. 아마샤가 인질로 잡혀갔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아 52년 동안 긴 통치 기간 동안 큰 성공을 거뒀던 유다 왕.

그러자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웃시야 다음으로 통치한 첫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요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성공을 잇는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를 이어 약한 왕인 아하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서쪽에서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주제(United Monarchy)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적수는 추악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서부 셰펠라(Shephelah)의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그보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사람들과 매우 가까웠고 디글랏 빌레셀의 가신이 되었으며 아시리아에 저항하려는 다른 지역 왕국의 압력에 맞서 아시리아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7장에 언급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앓시리아인이나 다른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한 대신에 아하스는 약해지고 앓수르로 갑니다. 돕다.

이제,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나중의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하스의 다이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사용된 용어이며 야딘과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a'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두 개의 계단이 꼭대기에서 합쳐진 해시계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예술가가 재구성한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아하스는 이것을 발견했거나 다메섹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에서 복사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앓수르 제단을 보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도 이것을 보고 이것을 그의 궁전으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해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히스기야 통치 중에 나중에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하스라는 이름이 적힌 황소나 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할 때 입었던 후기 블레셋 사람들의 옷이나 아스돗의 옷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이 위대한 도시 사마리아를 파괴했습니다. 이 도시는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오랜 전쟁 끝에 모든 인구가 추방됩니다. 포위 공격과 북쪽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글랏 또는 디글랏-빌레셀의 후계자인 이 두 왕, 살만에셀과 사르곤은 그들이 추방한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 아시리아 북부 지방에서 사람들을 그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 북부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이른바 이종족의 사람들인 사마리아인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8 세기에 예루살렘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 성은 다윗 통치 기간까지 예루살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새화되고 건설된 핫도그 모양의 동쪽 언덕인 예루살렘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은 오벨과 성전 산, 모리아 산을 포함하여 그것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8세기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8세기 초, 아마도 9세기 후반에도 여기 서쪽 언덕에 교외 교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에서 파괴한 성벽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타워의 길이와 수를 설명합니다.

서쪽 언덕을 둘러싸는 성벽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사중이던 벽이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세운 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다시 그것을 뚫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웃시야와 그의 계승자들은 그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새로운 지역을 포함하고 예루살렘이 서쪽 언덕과 현재 구 도시의 아르메니아 지역인 언덕을 덮었을 때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작은 도시, 다윗, 솔로몬, 솔로몬의 확장, 그리고 서쪽 언덕을 둘러싼 후기 군주제에 대한 작은 그래프의 진행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 멸망 후인 586년에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의 이 지역만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유명한 왕 중 하나인 히스기야의 통치는 또다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앗시리아의 최소한의 가신이었지만 동시에 이 군대를 건설하고 그의 보급품을 늘리고 그의 도시를 요새화했으며 우리는 현재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수로를 발굴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제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더 일찍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따르면 그는 그 일의 일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 밖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와 실로암 못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쪽 언덕 사람들과 다윗 성은 물 없이도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벽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공학적 위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불구불한 모양의 터널이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새는 바위 틈이나 다른 곳을 따라갈 수도 있었지만 물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일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자 그룹이 어떻게든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비문은 실제로 1880년대에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아랍 어린이들이 발견한 실로암 비문이었으며, 그것은 바위를 잘라내어 이스탄불로 보내졌으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성된 비문이다. 유다에서 가장 긴 기념비적 비문이지만 미완성인데 또 일꾼들이 반대편에서 와서 만나서 바위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음성과 소음을 듣고 터널이 연결되고 물이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혼은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이제 다윗 성의 동쪽을 따라 정원에 물을 공급하는 수문과 실로암 수도도 있는데, 이는 솔로몬이 기드론 계곡에 있는 왕의 정원에 물을 주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특히 히스기야가 유다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앗수르에 대항하여 계획하고 있던 반란에 대비하여 많은 양의 물자를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또한 므로닥, 발라단 또는 그 바빌로니아 통치자가 보낸 사절들을 접대하여 다른 세력과 협력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유다의 왕립 항아리나 라멜렉 항아리의 사용이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도 또 다른 도장이 찍힌 손잡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05년 매우 중요한 순간에 사르곤 2세가 이란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이것은 앗시리아에 있어서 매우 나쁜 징조입니다. 왕이 전투에서 죽고 그들은 분명히 시신조차 복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앗시리아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는 제국이 되었고, 제국 주변의 가신들은 그것을 약점, 이것이 약점, 앗시리아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다 주변의 모든 지역 왕국을 조직하여 이 반란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산헤립이 대군을 모아 이 반역을 진압하기 시작하였고, 701년에 그가 북쪽에서 나타나서 북쪽에서 남쪽 레반트를 향하여 왔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동맹국들이 트란스요르단 왕국들과 블레셋 왕국들, 페니키아 왕국들이 모두 산헤립에게 달려와 조공을 바치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질적으로 반역에 빠졌고, 그래서 산헤립은 그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체계적으로 유다의 도시들을 정복하고 멸망시켰고, 다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라기스에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수도 유다, 큰 성 예루살렘을 빼앗을 마지막 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군대 전체를 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산헤립은 군대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유다 왕국 전역에는 산헤립의 이 캠페인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증거와 파괴의 층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고고학에서 매우 강력한 빨간색 문자 날짜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최근에 발견된 유다 왕 히스기야, 멜렉 예후다라는 이름이 여기 바닥에 있는 인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인감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사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인장 인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 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Charles Claremont-Ganneau 가 Silwan에서 발견한 이 무덤 비문입니다. Silwan은 Kidron Valley 건너편 David 도시 바로 맞은편의 아랍 마을입니다. 즉, 실완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공동묘지, 즉 예루살렘의 묘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곳에 있는 많은 집에는 실제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방인 뒷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Claremont- Ganneau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그곳에 있는 모든 무덤을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이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비문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풍화되고 폭행당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아마도 지붕 들보를 위해 절단되었지만 그는 이를 기록하고 그 자리에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잘려서 대영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1950년대 나흐만 아비가드(Nachman Avigad)라는 젊은 이스라엘 학자가 이를 재연구하여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대영 박물관에서였습니다.

Shebnayahu 또는 Yahu 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린 구멍 때문에 이름의 첫 부분이 없습니다. 집 위에는 누가 있나요? 이것은 왕실 청지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무덤이다.

여기에는 그의 몸과 그의 여종의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덤을 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야후(Yahwist) 이름 끝에 야후(Yahw) 또는 야(Yah)가 붙은 왕의 청지기인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 셉나, 셉나야후 여야 한다. 이사야는 22장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 대해 언급하기까지 하며, 왕의 청지기에 대해 언급할 때 다윗 성에 서서 그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형적인 유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책에는 사람들에게 무덤에 가까이 가지 말고 무덤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Avigad가 그의 경력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그것을 해독하고 그 비문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산헤립의 유다 침공은 이 프리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여기 뿔 박물관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물론 많은 세 가지 성경 본문을 포함하여 이사야서, 열왕기서, 역대기 모두 이 침략과 산헤립 자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버전과 아시리아 버전의 두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엄청난 양의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기스 가을에 있었던 이전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헤립이 침공하기 직전의 라기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라기스 부조는 아시리아의 포위 공격, 정복, 라기스 주민들의 추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이런의 시. 그리고 다시,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이러한 요점은 산헤립의 침공 동안 일어난 일의 궁극적인 운명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멸망의 층이 없습니다. 이는 구약성서에 기록된 기적적인 사건을 다시 뒷받침합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멸망은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이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5,000명의 아시리아인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죽었습니다. 훨씬 후대의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그 지역의 아시리아 군대에 영향을 미친 전염병에 대해 비밀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즉 성경적 사건에 대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산헤립의 비문과 부조는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아시리아가 왕국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수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떠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다와 히스기야는 살아남지만 왕국은 황폐해지고 나중에 느닷세 통치 기간에 앗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왕성한 시온 신학의 부상이 최종적인 지점인데, 이는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짓 신학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함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하게도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Jeffrey Hudon 박사와 성서 고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0, 위대한 8세기 고고학입니다.